

# 2023년 나눔과섬김의교회 설 예배모범

🕯 **예배초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 **찬 송** 370장

🕯 **기 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가족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올 한해 모든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신명기 8:1~10 (구약 53쪽)

🕯 **설 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밭을 경작하거나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었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점에서 좋은 옷이나 신발을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그네 생활은 이제 곧 끝이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건축한 아름다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먹으며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윤택한 삶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 남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했던 심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약속의 땅에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궁핍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 복된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외해야만 약속의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행복한 삶의 지속 여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각인시키시고 나서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생면부지의 낯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알려진바 된 것입니다. 즉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에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삶의 터전과 생활의 환경은 바뀌지만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생사화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울삼아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안전한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에게 큰 기대와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 줍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고, 경험이 없는 세상에서 한 번에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주하는 현실은 3천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보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인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로 걷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올해도 작년과 같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년 이 자리에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안을 누리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기대와 소망 중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도요 나침반으로 삼아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384장

🕯 **주기도** 다같이